

‘먹지 말고 참아라정’

임 락 경 (목사, 강원 화천 시골교회)

2004년 8월1일부터 식약청에서 뇌졸중에 위험이 있는 감기약 167종을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처분 조치를 내렸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들이다. 제약회사가 75개 회사였다. 감기약이라면 먹을 일이 없었기에 별 관심도 없었으나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폐기처분 명령을 내린 감기약 수도 167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애초부터 약 이름에 욕이 들어간 지미코니 지미신 시럽이니 지미 애비 찾기에 싫었다. 감기약 뿐 아니라 다른 약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이나 국적 불명의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은 정말이지 싫었다. 그래도 지미코니, 바로코니, 두리코, 아기코프니 코뚜정이니 하는 말은 코가 들어가니 코 막힌 데나 콧물 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너무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사용, 제조, 판매, 수입 금지된 제품명만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자.

경남제약(콜스마인캡셀, 코나벤캡셀, 미나코시럽), 고려은단(라스킨에스캡셀, 코프콜캡셀), 광동제약(이지코캡셀, 하디콜플러스정), 구주제약(신콜캡셀), 국전약품(국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넥스팜코

리아(콜루킹캡셀), 녹십자(상아 코프러스시럽, 다림바이오텍, 허브콜 캡셀), 대우약품공업(코리빈캡셀, 코라벨시럽, 코리베린정, 아투빈에 프캡셀), 대응제약(지미코정<수출명 NOREX TAB>, 콜킹연질캡셀, 콜킵캡셀, 지미코산, 베비코엘릭실), 대원제약(리엔시럽, 원콜정, 리엔정, 원콜엘릭실<수출명 디-콜드엘릭실>, 코리엔정), 대화제약(코맥스캡셀), 대홍약품(대홍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동광제약(유나콜연질캡셀, 팡가레이캡셀, 코노바정, 크노바엘릭실, 뚜뚜정, 뚜뚜시럽, 코마코정), 동구제약(코치올정, 코치올엘릭실), 동성제약(콜팩스연질캡셀), 메디카코리아(비비연질캡셀, 메디카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원료), 명문제약(메디콜정), 명인제약(아이코정, 스토클드연질캡셀), 미래제약(데이노즈정), 바이넥스(코라솔정) 바이넥스(코미나정), 보람제약(로짐캡셀), 부광약품(타코나에스시럽, 코리-투스시럽), 삼공제약(밀로바캡셀), 삼남제약(에스엔콜정), 삼성제약공업(지메담시럽, 페로판시럽, 두핑연질캡셀, 판토-티프러스웬산, 판코시럽), 삼아약품(코비안정, 코비안엘릭실, 코미안시럽, 코비엔엘릭실), 삼오제약(삼오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삼익제약(노비스정), 삼천당제약(페리코정, 페리코엘릭실), 서울제약(앤콜정, 알텍사정) 세종제약(코렉실엘릭실, 코렉실정), 수도약품공업(펜아민정, 코제시럽, 예코정, 콜엔플루연질캡셀, 패스코 연질캡셀, 수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신신제약(쿨라젤 캡셀), 신일제약(투수콜연질캡셀, 꼬야시럽, 뽀뽀콜정, 이코정, 벤자콜에스시럽, 코린투정), 신흥제약(코이덴시럽, 코이덴정, 바로코정), 쉐라트팜코리아(솔코정, 다이틴캡셀, 솔코정(수출용)), 아남제약(세리펙정), 알앤피코리아(콜그만코프 연질캡셀), 에스케이제약(쎄티코프연질캡셀), 에이치팜(디어트정, 코딩시럽, 코딩정), 영일약품 공업(골겐연질캡셀, 코콜정), 영진약품공업(콜민정, 콜민엘릭실, 콜민엘릭실, 콜푸민엘릭실), 영풍제약(영풍파노바연질캡셀, 파노콜정), 오리엔탈제약(콜키퍼캡셀), 유영제약(비네콜정), 유한양행(콘택코푸캡셀, 콘택600캡셀, 콘택600비과립, 콘택코푸비과립, 콘택400캡셀), 이연제약(코나브이정), 일양약품(프리노

캡셀, 메디노스시럽), 조아제약(콜콜캡셀, 아이비콜시럽), 중외제약(화콜에이캡셀, 화콜에프캡셀, 화아니시럽, 화콜에프시럽, 화아니캡셀, 화콜골드캡셀, 두리코푸캡셀, 리노콜캡셀), 청계제약(코돌핀연질캡셀), 코오롱제약(마브린캡셀, 코뚜시럽, 코뚜정, 슬리미캡셀, 코니정, 캐치콜캡셀, 코뚜에스정, 캐치콜시럽, 코뚜에이시럽), 크라운제약(나시트릴 정, 해소민에스시럽), 하나제약(코비단정), 한국비엠에스제약(콥트렉스코프연질캡셀), 한국슈넬제약(남바콜정, 탐콜에프캡셀, 리노시럽, 리노비코정, 다나코비시럽), 한국와이어스(디메탐정, 디메탐연질캡셀), 한국위더스제약(소아용비나콜연질캡셀, 샌디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코프린정), 한국이텍스(페브로민엘릭실, 페브로민정), 한국파마(플루펜정, 아기코프시럽), 한림제약(휘가캡셀, 테미콜정, 테미콜엘릭실, 코스펜시럽, 써스펜콜드캡셀), 한성제약(코트렉스캡셀), 한영제약(코나민정), 한일약품공업(카나벤캡셀, 오노캡정, 코가비시럽), 행림약품(행림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현대약품공업(시노카캡셀, 시노카시럽, 무스콜캡셀), 현창제약(콘콜드캡셀), 화덕약품(화덕페닐프로판올아민), 화원약품(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휴온스(포스림캡셀).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극비로 간직해도 될 말이다. 오래 지속된 제약회사의 약품이름은 우리말이고 우리말로 된 약품이 잘 팔리고 오래간다. 이번 기회에 금지된 약 이름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감기약을 만들 때는 먼저 감기약이라는 명칭을 크게 쓰고 거기에다 팔호 치고 열 내리는 약 이라든가 콧물 멈추는 약, 아니면 기침 멎는 약이라고 알기 쉽고 먹기 쉽게 한다면 회사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고, 약사도 편하고, 주인인 소비자도 아주 간편할 것이다. 경험 많고 한평생 의사, 약사로 살아왔다 해도 167개의 감기약 이름을 다 외우고 처방해줄 의사도 없을 것이다. 설사 처방이 나왔다 해도 약국마다 감기약만 종류별로(167종) 갖추어 놓고 처방전을 기다리는 약국도 없을 줄 안다.

감기는 내가 생각한 바로는 몸에 있는 독성이 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기(感氣)란 기운을 느낀 것이다. 이 느낌이 조치가 안되면 다른 병으로 가게되니 미리 기운을 느끼라는 뜻이다. 감기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침으로 기관지염으로 폐렴으로 폐결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통첩이다. 이 통첩을 받고 나서 이제 얼마 후면 나에게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늑막염이나 폐결핵이 올 것이라는 파발이 온다. 말하자면 선전 포고가 도착했으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닥쳐올 재앙을 면해야 한다. 몸살이 올 것 같으면 편히 쉬어주고 영양실조증세라면 잘 먹어서 지방질과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기침이 올 것 같으면 맑은 공기, 맑은 물로 바꾸어 주고, 콧물채채기가 오면 체내에 음식을 맑게 해서 받아들이고 통첩을 전해오는 파발은 잘 대접해서 신발 세 켤레 정도 주어 보내야 된다.

그런데 감기를 약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전달 온 파발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갈을 가지고온 파발의 말대로 약 먹지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증세가 오기 마련이다. 기침이 나면 기침 날 행동을 말고, 열이 나면 열이 날 행동을 말고, 입맛이 없으면 먹지말고, 일어날 기운이 없으면 누워있으면 고쳐진다. 감기는 여름철에는 잘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러오지 않는다(독이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 우리는 무슨 병이 나면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귀신같은 병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요행이고 만약 걸리면 병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를 했었다.

요즘은 무당들도 약국, 병원을 찾는다. 그런데 무당보다 더 우둔한 것은 일부 성직자들이다. 감기 걸린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병이란 기도해서 고쳐질 병이 있고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병이 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으리라 믿는다. 가령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 잘렸는데 그를 붙들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빨리 병원으로 옮기면서 기도하고 옮겨놓고 기도해야 된다. 막상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기도마저도 잊고 안 한다. 감기도 마찬가지

다 절대로 기도만 해서는 고쳐질 병이 아니다. 감기란 몸에 음식으로나 호흡기로 독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독이 땀으로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으나 땀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증세가 오는 것이다. 재채기가 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오한이 오는 것은 빨리 땀흘리라는 신호다. 이때 땀을 흘리지 않으면 간이 해독시키느라고 머리가 아프다. 간은 피로회복과 해독시키는 일을 하는데 과로로 인해 감기가 오면 피로회복 시키려다 해독을 못시키니 그만 움직이라고 쓰러져 눕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무슨 음식이든 약간의 독이 있으니 이제는 먹지 말라는 뜻이다. 짧게는 1일, 길게는 3일만 굶고 누워 있으면 치료된다. 그러나 이때 열 내리는 약과 머리 아픈 것 모르는 약과 팔다리 쭈시는 줄 모르는 약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해서 독을 먹어주고 움직이면 점점 과로해서 더 큰 병을 불러 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감기에 꼭 약을 먹어야 한다면 땀나는 약과 팔다리가 더 쭈셔서 아예 걸을 수 없이 잠만 자는 약을 먹으면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런 약들이 있다. 그런데 식약청이 발표한 167가지 약 중에는 그런 약이 별로 없다. 한방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미리 알아 감기약으로 패독산(敗毒散)을 쓴다. 깨트릴 패(敗) 독할 독(毒) 헤어질 산(散)이다. 독을 패해서 분해시키는 약이다. 눈치 빠른 약사들은 양약으로 패독산을 사용하여 빨리 고칠 줄 안다.

몇 년 전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몸살감기가 와서 수업도중 조퇴하고 선생님께는 병원에 간다 하고 집으로 왔다.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빠한테 와야 고쳐질 것 같다는 것이다. 우리집에는 감기약이 없다. 몇 해 전 일본에서 손님이 왔는데 커피 해독제라고 주고 간약이 있었다. 이 약을 1알 먹었더니 금방 고쳐진다. 하도 신기해서 무슨 약이냐고 묻는다. 말하자면 커피해독제나 한방에서 말하는 패독산이나 마찬가지로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장 기능의 1일 음식물 소비량이 있다. 작업량을 초과하면 해독시키는 기능도 작업량

이 초과되어 감기가 오는 수도 있다. 이때는 소화제만 먹어도 감기가 고쳐진다.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다. 간이 해독시킬 작업량을 초과했기에 간이 과로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다. 사실은 해독제 한 가지만 가지면 모든 병의 70%정도를 고칠 수 있다. 무슨 병이든 감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위장병과 대장, 소장에서 온다. 부패하거나 독 있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장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나는 병이 배탈이고 그 증세를 사령부에 보고해야 되겠기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배 아프면 머리 아픈 것은 장에서 독이 밖으로 빨리 안나가기에 간이 해독시키느라고 머리가 아픈 것이다.

2002년 초겨울 유행성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우리집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전염되어 조퇴하고 와서 누워있었다. 독감에는 역시 해독제가 제일이라서 녹두죽을 먹였더니 고쳐졌다. 전염병이라서 예방책으로 녹두죽을 쑤어 온 식구가 먹고 예방을 했다. 녹두란 해독제로 아주 좋은 콩 종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녹두라는 하나밖에 없는 콩을 주시었으니 누구든지 독감이 올 적에는 녹두죽을 먹으면 독감에 걸리지 않고 영생(永生)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 나더러 이단 교주라고 할 것 같으니 그냥 우리말로 오래 살(永生)것이다 [독감복음].

다시 말해서 감기가 오면 굶는 것이 제일 좋고 좀 참으면 고쳐진다. 이제는 참지 않으려고 해도 167가지 약을 빼고 나면 먹을 감기약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참아야 한다. 우리집에 다정이라는 6학년 아이가 1개월 간 광덕초등학교에 현장실습 학생으로 와있었다. 나더러 하는 말이 감기가 들면 ‘참아라 정’이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한다. 나는 어른들은 ‘참아라 정’이고 아이들은 ‘참아라 시럽’이라고 했다.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감기에 더 좋은 약이 개발되었어요 ‘먹지말고 참아라 정’이 있어요 한다. 그 다음날은 모기물린 데는 ‘긁지 말고 참아라 정’이 있어요 한다. 내 처방은 모기 물린 데는 ‘긁지 말고 침 바르고 참아라 연고’라고 했다. 감기뿐 아니라 다른 병에도 ‘먹지말고 참아라 정’이 최고다. ❶